

세계적으로 ‘금연붐’은 번져가고 있다. 이유야 어찌하였든, 일본에서 뿐만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를 금지하는 경향이다. 특히 서양국가에서는 장시간에 걸친 비행기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법률화하였다. 그리고 社内에서도 흡연장소를 정하는 듯 곳곳에서 금연 운동은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운동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것은 대체로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는 흡연가들의 거부감이다. 규칙까지 만들어 금연 시키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권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다.

다른한가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찬성의 목소리이다. 실제, 담배라 함은 간접적으로 피우지 않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린이들한테 또는 임신부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운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에 모두 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담배라는 것은 실제 타인에게 폐를 끼칠 뿐 아니라 이름모를 그의 건강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작년에 일본에 놀러 갔을 때 어린이들이 자주 놀러가는 맥도날드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왔다. 그 집에서는 재털이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다. 물론 그 가게에서는 흡연장소가 있기는 하지만 조그마한 가게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자유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나아가 건강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자유가 되지 않는다.